

경제

# 광주지역 수출기업 56% FTA 활용

# “한국경제 내년 하반기 성장률 호전”

### 광주상의 113개사 활용실태 조사

## 10곳중 6곳 “관세절감 혜택 이유” 활용률 EU-아세안-미국順 높아

광주지역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수출기업 113개사를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6.6%가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협정별로는 한-EU(유럽연합) FTA의 활용률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아세안 FTA(26.1%), 한-미국 FTA(17%), 한-인도 FTA(8%), 한-칠레 FTA(3.4%), 한-페루 FTA(2.3%), 한-싱가포르 FTA(1.1%),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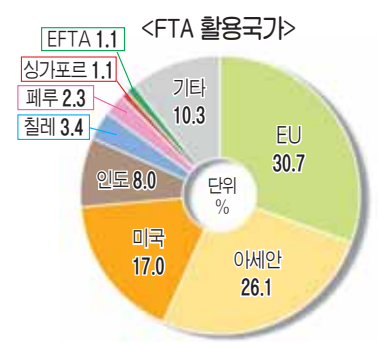
FTA를 활용하는 이유는 ‘관세 절감을 위한 해외바이어의 요청’(64.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입 원

자재가격 절감’(20.3%), ‘국내 거래업체의 요청’(13.5%)이 뒤를 이었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출이 많지 않아서’(36.7%), ‘현재 거래와 무관함’(28.6%),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 어려움’(10.2%), ‘해외 수입자의 낮은 인지도로 요구하지 않음’(8.2%), ‘관세인하 효과가 적어서’(6.1%) 등을 꼽았다.

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원재료 관세혜택으로 말미암은 비용 절감’(53.1%)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거래량(수주액) 증대’(20%), ‘가격 경쟁력 우위 확보’(18.5%), ‘신규 공급처 증가’(7.7%) 등을 들었다.

FTA 활용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변화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세 보다는 환율 및 원자재의 영향을 받



므로’(45.3%), ‘관세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42.2%)라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1.8%), ‘일부만 알고 있다’(38.1%),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51.3%), ‘모른다’(8.8%) 등으로 나타나 지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수출업체들은 FTA 활용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FTA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서’(56%), ‘지원센터 소식지와 홍보자료’(17.2%), ‘인문매체를 통해서’(12.9%), ‘중소기업 지원기관 홈페이지’(9.5%), ‘다른 중소기업

통해서’(0.9%) 접했다고 답했다.

한 번이라도 이용한 지원제도는 ‘FTA 활용 컨설팅과 교육’(43.2%),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기준 정보 제공’(30.3%),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16.7%), ‘중소기업 수출 지원’(3.0%),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2.3%), ‘해외 투자 지원과 정보 제공’(0.8%) 등이었다.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이 강화되길 바라는 내용은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교육’(49.1%), ‘원산지 증명 발급 간소화’(35.3%), ‘FTA 활용 전문 컨설팅 제공’(9.5%),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3.4%) 등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FTA를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김중수 한은총재 “상반기까지 완만한 성장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13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14일 전망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성장세가 머물것으나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돼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에 그쳤지만 민간소비가 점차 늘어나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이 개선추세를 이

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주택시장 부진,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등이 제약요인이나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돼 소비증가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세계경제의 회복 움직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도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건설투자도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

벽’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주변국 경제에 대해 김 총재는 “미국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겠으며, 유로지역은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정치안정, 경기부양책의 본격 시행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8%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외적 복구를 위한 재건사업 종료 등으로 내년에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PB고객투자설명회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14일 오후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은행 PB고객 100여명을 초청해 ‘PB고객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병원복지설비기기 국제박람회에서 도우미들이 삼성전자만의 공기제균기술인 S-플라즈마 이온이 적용된 ‘삼성 바이러스닥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日박람회서 에어컨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에어컨 기술을 일본 국제박람회에서 전세계에 알린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4~16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병원복지설비기기 국제박람회(HOSPPEX Japan 2012)에 참가해 공기제균기술인 S-플라즈마 이온과 고성능 집진필터인 K엘리먼트를 선보인다.

S-플라즈마 이온은 활성수소와 산소이온을 방출해 공기 중의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삼성의 특허 기술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병원성 감염균, 알레르기 원인

## 10월 광주·전남 실업률 소폭 하락

10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실업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10월 광주·전남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10월 실업자는 1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2.7%(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1.9%로 0.2%포인트 하락했다.

10월 취업자는 69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1만 명) 증

## 한전 3분기 영업이익의 2조...작년비 39% 늘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77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1%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7.1% 증가한 13조72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은 939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253.1% 늘어났다. 한전의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조1480억원, 매출액은 13조7939억원이었다. 각각 작년 3분기보다 118.7%, 17.9%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94.04 (+4.34)
코스닥지수	503.24 (-10.56)
금리 (국고채 3년)	2.79% (+0.01)
원·달러 환율	1,084.90원 (-5.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수출단가·환율 하락으로 3분기 수출채산성 악화

10월지수 작년비 8.1% 뚝  
수출비용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무렵은 분석했다.

수출채산성 지수는 2010년 3분기 103을 기록한 뒤 그해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수출채산성은 수출 단위당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수출가격이 수출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무렵 관계자는 “달러 기준 수출단가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최근에는 환율 하락이 겹쳐 수출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한편 ‘원리스 크’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국내외 한국 자동차 생산 누적대수 9천만대 돌파

한국 자동차의 글로벌 생산 누적 실적이 9천만대를 넘어섰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업체들이 생산한 누적 자동차 대수는 총 9047만4216대로 집계됐다.

수출은 유럽연합의 산업 수요가 감소한 탓에 6.3% 감소한 25만8361대에 그쳤다. 내수는 K3와 신형 쏠타페 등 신차 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5.1% 늘어난 13만6770대를 기록, 올해 가장 많은 월간 판매고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한미금거래소

## 금맥을 캐내라!

### 금거래 비즈니스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범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하게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

## 극락전 남골당

###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위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질을 해는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부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